숲상추·시숲치·숲갈치… 장보기 겁난다

폭염·폭우·적조 영향 식탁물가 폭등

오이 123% 상추 69% 오징어 40%⬆

폭염과 폭우, 적조 등 영향으로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치솟고,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2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살펴본 결과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금치, 상추 등 푸른 잎 채소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광주지역에서 3만7200원에 거래됐던 오이(취청·20kg)는 한 달 만에 무려 123.1% 폭등하면서 도매가격이 8만3000원으로 5만원 가량 크게 올랐다. 오이 가격은 사흘 만에 30%나 오르는 등 연일 급등하고 있다.

한 달 전 도매 가격이 1만9200원이던 시금치(4kg)는 일주일 사이 40%가 올랐고, 한 달 사이 82.3%나 급등해 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적상추(4kg) 도매가격은 한 달 만에 69%가 오르면서 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 사이 184.6%나 급등했다.

조선애호박(8kg)은 하루 만에 25%(7000원), 일주일 사이 133%(2만원)이 올라 3만5000원까지 폭등했다.

미나리(20kg)도 한 달 사이 87.8% 올라 6만5000원에 판매중이다.

오름세가 주춤한 청피망(10kg)도 3만5000원으로 한 달 만에 118.8% 급등했다.

대파, 토마토, 양파 등 대부분의 채소도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aT 측은 최근 잦은 비가 내리면서 배추 등 잎채소류의 경우 생육 호전과 공급물량 증가로, 시금치와 대파 등은 가격급등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심각한 적조 때문에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규모로 폐사하는 등 수산물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만 적조와 고수온의 영향으로 전복 179만9000여마리, 돌돔과 넙치 49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이는 전체 양식장 생산량의 0.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들 어류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협 광주공판장에서 오징어 20마리들이 1박스에 1개월 전에 2만5000원 하던 것이 현재 3만5000원으로 40%가 올랐다.

고등어는 제철을 맞아 광주 양동시장에서 1kg 기준 4300원으로 전달과 비슷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갈치는 1kg에 전달과 비슷한 1만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소매시장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금값'을 향해 가고 있다.

수협 광주공판장의 한 관계자는 "오징어 등을 빼고 도매시장에서는 아직 가격 폭등 사례가 많지 않지만 소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착한 소비로 경제 살리자" 23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광주 광천터미널 앞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광주시민 선순환 소비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

저축은행 총 수신액 4월 한달간 1조 줄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저축은행 총 수신액이 1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수신이 늘어난 일부 우량 저축은행은 불황으로 돈 굴릴 데가 없자 예금금리를 대폭 낮춰 수신부담을 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전국 93개 저축은행의 총 수신액은 4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45조 7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수신액 기준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전월보다 2074억 원, 3위인 경기저축은행은 457억 원 감소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B저축은행은 9360억원에서 8050억원, 신한저축은행은 8571억 원에서 7471억원, 하나저축은행은 5782억원에서 5352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5166억원에서 5147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저축은행 총 여신액은 4월 36조 1000억 원에서 5월 35조 8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었다. HK저축은행과 동부저축은행도 여신액이 각각 183억 원, 3억 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개점 17주년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난다

조창현 대표 "사회공헌 강화 지역민이 행복한 기업 만들 것"

"지역민의 생활문화를 풍요롭게 디자인하고 고객이 행복한 종합생활 문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25일 개점 17주년을 맞는 조창현<사진>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23일 "지난 17년 동안 지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가 없었다면 오늘날 광주신세계가 지역 유통산업의 중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공간을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서비스를 제안하고 지역 최대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혁신을 추진하는 등 지역민이 행복한 기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그동안 지역상품의 판로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문화·예술·체육지원사업, 친환경 사업 등 '지역 친화 5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 등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급 침구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운현궁'을 비롯해 기능성 화장품 '테라이엔씨', '식음료 '동의나라', 전통한과 '시루연', 수출전문 패션잡화 '루미코리아' 등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및 육성해왔다.

또 '창평군 딸기' '곡성군 멜론' 등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하는 것은 물론 22개 시·군의 특산물전을 열어 지역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에도 힘써오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기업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마다 1억원씩 총 17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에는 현지법인 설립 17주년을 기념해 '다문화 가정 17쌍 합동 결혼식'을 열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불러 일으켰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부터 광주비엔날레의 공식 후원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0년에는 친환경 경영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소통하는 기업문화와 사원 복지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도 선정됐다.

조 대표는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확대재생산 등 기업의 근복적인 역할 수행에 충실하겠다"며 "지역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세관 FTA 활용 컨설팅 'K-Farm 프로젝트'

54개업체 농수산물 수출 40% 늘렸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농어촌 기업들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K-Farm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결과 FTA 활용 수출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지역 농어촌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농수산물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K-Farm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집중 컨설팅을 한 결과 미국에 대한 FTA 활용률이 지난 5월 말 35%에서 7월 말 74%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수출 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했다.

광주본부세관은 그동안 농어민과 농어촌 기업 등 22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FTA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또 관세청과 중기청이 주관하는 '2012년도 FTA 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에 1차산업 분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지역의 '매실 조제 식품'을 출품해 우수상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10~11월에 있을 2012국제농업박람회 및 광주국제식품전에 참가하는 농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FTA컨설팅과 수출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Farm 프로젝트 = 'Korea Farm&Fish Industry-Up'의 약자로 문화계의 한류처럼 농어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고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분기 가계빚 다시 증가…사상최대

1분기에 주춤했던 가계 빚이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했다.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고 전분기에 축소된 카드·할부 외상판매 역시 감소폭이 줄었다. 전체 가계 빚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2분기 가계신용은 922조원이다. 1분기보다 10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8000억원 감소했던 1분기 가계신용 추세와 대조적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0조9000억원 늘어난 868조4000억원으로 가계신용 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42.54 (+7.35)
▲ 코스닥지수	499.34 (+6.45)
▼ 금리 (국고채 3년)	2.88% (-0.02)
▲ 원·달러 환율	1,942.54원 (+7.35)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